

창조적 발상으로

2004 인쇄인 신년인사회



◆ '2004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9일 오후 5시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인쇄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은 이날 참석한 내빈들.



◆ 민재기회장



◆ 오지철차관

새해 희망을 설계하는 '2004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9일 오후 5시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과 관련 단체장, 인쇄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민재기) 인쇄연합회(회장 박득룡) 서울인쇄조합(이사장 고수곤) 공동 주최의 이날 인사회에는 오지철 차관과 유기정 세계중소기업연맹총재, 이정일 출판협회장, 이심 잡지협회장, 김직승 허철중 채복기 이일수 김종명 전 임회장, 김종수 출판조합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단지이사장, 전덕수 제책조합이사장, 김충진 전시조합이

사장, 하계민 부산조합이사장, 최창근 대구경북조합이사장, 강동환 제일조합이사장 등 단체장과 관련 업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민재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 우리 인쇄인들은 경기 회복은 커녕 물량, 인력, 자금난이 심화되어 IMF 외환위기 때와 다름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면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인쇄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난해에는 인쇄역사문화관 개관과 일본도서전에 한국인쇄관 설치, '직지찾기' 운동 적극 전개, 정보화사업 추진, 한중교류회의 개최, 일본인쇄전시회 및 상해인쇄전시회에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인쇄 위상

갑신년 열자



상. 귀빈들이 케이크를 절달하고 있다.
 중. 유기정 회장이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하. 오지철 차관이 단체장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제고와 수출증진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또 "올해에도 관계 부처와 관련단체, 관련업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쇄문화에 대한 위상제고와 국제 교류 사업, 대국민 홍보강화사업, 권익보호 사업, 정보화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유머가 있고, 창조적이고, 발상이 뛰어나며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원숭이의 해를 맞아 우리 모두 창조적인 발상과 경영으로 유머와 웃음이 넘쳐나는 갑신년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오지철 문화관광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출판 및 인쇄산업이야말로 21세기를 주도할 문화산업의 핵심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다양한 파생문화상품을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에는 파주인쇄단지조성과 인쇄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 30억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인쇄물 해외인쇄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금 1억원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우리나라가 2005년 주빈국으로 선정된 만큼 인쇄업계도 적극 참여를 바라며 인쇄물 수출 증대에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고 강조했다.